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방법 - 무리 사냥에 대한 고찰

조태섭
연세대학교 사학과

A Study of Hunting Method of the Paleolithic People - Herd Hunting

Taesop Cho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요 약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 구석기인들의 사냥 활동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냥의 규모이다. 페인트칠 작품을 보면 무리의 크기는 1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 10명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사냥을 위해 나가며, 사냥 대상에 따라 무리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들소와 같이 큰 야생의 동물을 잡으려면 9개 또는 7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같은 크기의 동물인 말을 잡으려면 여섯 명이 함께 모였다. 반면에 사슴과 같은 비교적 작고 가벼운 동물을 사냥하는 경우는 2~3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냥 무리의 크기는 10명 미만이었으며 사냥 무리의 크기는 동물마다 약간씩 다르게 보인다. 둘째, 이들 그룹은 잘 분화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명을 4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로, 사냥 무리의 대부분의 무기가 창이었음을 볼 수 있다. 돌 도구의 생산과 사용은 점차적으로 개발되어 작은 석기, 작은 석기를 만들고 창에 연결하여 사냥을 더 효율적으로 했을 것이다. 석재 도구와 목재를 연결하는 이러한 복합 모직물은 사냥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구석기, 사냥, 규모, 역할, 무기

Abstract : There are many uncertainty to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Paleolithic men hunted animals. But in the meantime, We can identify a part of the hunting activities of the old people through artworks left by the paleolithic people at that time. First is the size of the hunt. In the case of painted artwork, the size of the herd does not exceed 10 people. Therefore, a small group of about 10 people would go out for a hunt, and they could see that the size of the herd varied according to the hunting target. In other words, to catch large and wild beasts like bison, you can see that it consists of nine or seven groups. In order to catch the horse, the same large animal, we can see that six people joined together. On the other hand, a group of two or three people hunting a relatively small, mild animal such as a deer would have been enough. Therefore, the size of the hunting herd was less than 10 people, and the size of the hunting herd seemed to be slightly different for each animal.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se

groups have a well-divided role. Because all nine of them were hunted out, they were divided into four small groups, which is likely to imply that the role of each group was different. Third, we can see that most of the weapons of the hunting herds were spears. The production and use of stone tools have been progressively developed, making a small stoner, a small stoneware, and connecting it to the spears, making it more efficient to hunt. This kind of composite wool connecting stone tools and wood would have been the most efficient means of hunting.

Key words : Paleolithic, Hunting, Size, Role, Weapon

1. 서론

빙하와 인류활동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갱신세(Pleistocene)동안 존재 하였던 것은 인류문화 단계는 쎄석기를 만들어 쓰던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동안 이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남긴 도구나 연모 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뼈를 연구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어떤 동물들을 사냥하고 소비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과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 짐승들을 사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말하기 어렵다.

사실 약 250만년도 넘게 지속된 구석기시대의 삶이 한결같은 것은 않았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동물의 사냥활동도 변화를 거듭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인간의 사냥활동의 변

화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구석기시대 사람들 그중에서도 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활동에 있어서 무리사냥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사냥을 나갈 때 과연 몇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나갔는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당시에 나온 예술품들에 새겨진 사냥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이해해보고 그 작품들 속에 그려진 사냥꾼 무리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

동물을 사냥(hunting)하는 것은 식물들을 채집하여 먹는 것과 함께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란 면에서 사냥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고 이것은 오랜 구석기시대 동안 되풀이되면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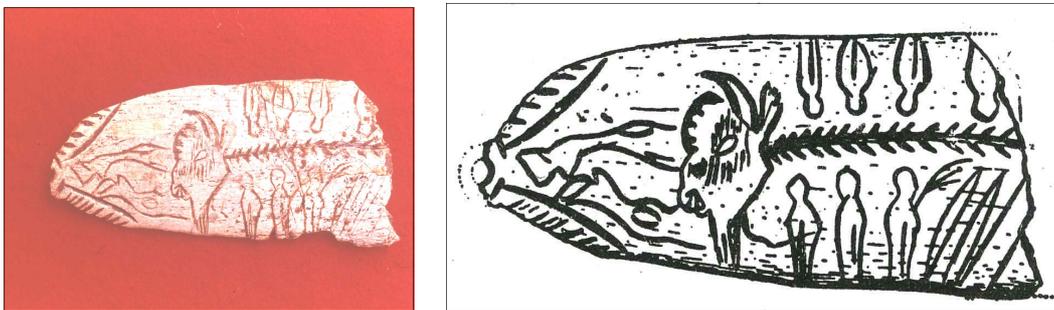


그림 1. 들소와 사냥꾼들이 새겨진 쎄턴트 - Raymonden, Dordogne, France (Duhard, 1996, 111p.).

조태섭

차 발전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별 사냥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그때 그때마다의 사회 구성, 무리규칙, 사냥감, 사냥도구(연모)등에 연결된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조태섭, 2011, 28쪽).

257만년 동안 계속된 갱신세 시기(약 258만년전 - 1만년전)에 살았던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은 크게 3개의 문화단계로 구분된다. 이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구석기시대(약 258만년전 - 30만년전) 사람들의 사냥활동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사냥도 대부분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유적들에서 찾아지는 동물화석들의 종류가 주로 토끼와 같은 작은 짐승들이고 식육류들도 역시 오소리, 족제비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것은 대형의 짐승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중기구석기시대(약 30만년전 - 4만년전)에 이르러 사람들은 본격적인 사냥활동에 접어든

다. 이제는 발달한 도구(석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짐승들을 잡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동물들이 사슴, 말, 들소등인 것을 볼 때 이러한 중 대형의 짐승들을 잡기위해선 사냥의 전략과 방법이 발달하여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순록이나 들소등 한 가지 짐승을 중점적으로 잡은 흔적도 있어 사냥감의 선택까지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후기구석기시대(약 4만년전 - 1만년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사냥에 대한 것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현생인류(Homo sapiens sapiens)들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돌날떼기와 좀돌날떼기, 창던지개의 발명, 창이나 작살과 같은 획기적인 도구의 제작이 이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구의 발전과 함께 사냥의 대상인 동물들의 습관이나 생태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사냥을 하게 된다. 본격적이고도 적극적인 사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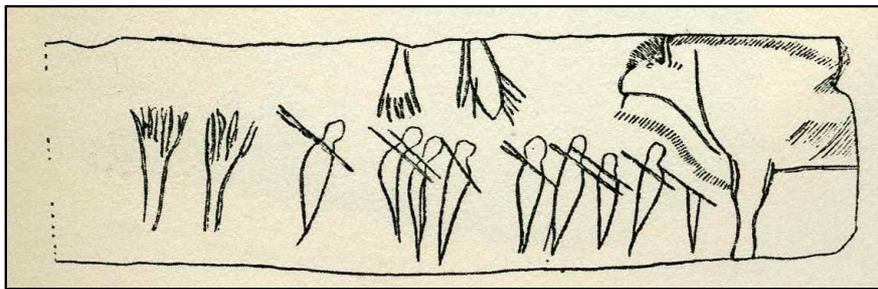


그림 2. 들소와 사냥꾼들이 새겨진 뼈 - Abri de Chateau aux Eyzies, Dordogne, France (Marshack, 1972, 206p.).

특히 이들은 짐승 사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였음이 밝혀졌는데 특히 함정이나 덫의 이용은 물론이고 올가미나 그물의 사용도 볼 수 있고, 올타리와 방책을 사용했던 증거도 나오고 있다(조태섭, 2012, 75쪽).

한편 이러한 변화를 사냥을 나간 사람들의 구성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즉 전기구석기시대의 개별적인 사냥이 중기 구석기시대이후로 여러 명이 함께하는 무리사냥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짐승들을 몰아 막대한 절벽으로 유인하여 떨어트린 다음 잡는 방법이나 함정에 빠진 매머드나 말과 같은 대형 짐승들을 죽일 때 동원된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었을 까에 대한 분석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3. 구석기시대 무리사냥의 증거와 인원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은 당시의 삶의 모습을 동굴의 벽이나 제작되는 예술품 등에 남겨놓았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후기구석기시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추정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동물들에 대한 그림, 또 사냥된 짐승들의 모습이나 사냥장면 등이 여러 각도에서 해석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무리사냥의

증거를 밝힐 수 있는 몇 가지 예술품들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무리사냥을 이해해보기로 한다.

3.1 들소와 7인의 사냥꾼

프랑스 레이몽덴 유적에서 나온 한 점의 새겨진 뼈에서 우리는 무리 사냥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둥근 구멍의 일부가 깨어져 나갔지만 원래의 용도는 목걸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들소의 머리와 7명의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유물이 레이몽덴(Raymondon) 동굴 유적(도르돈뉴, 프랑스)에서 찾아진 것이다.

남아 있는 유물의 전체 길이는 약 10cm이며 왼쪽에 소의 머리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는데 이 소의 얼굴에는 빗금이 여러 줄 쳐진 채로 나타나 이 짐승이 죽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림 1).

이 들소의 등 부분을 가로질러 등뼈인지 화살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선들이 길게 표시되어 있고 이 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4명, 왼쪽으로 3명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 유물의 끝을 보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일부가 깨어져 나간 상태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왼쪽 맨 끝에 있는 마지막 사람은 어깨에 창과 같은 것을 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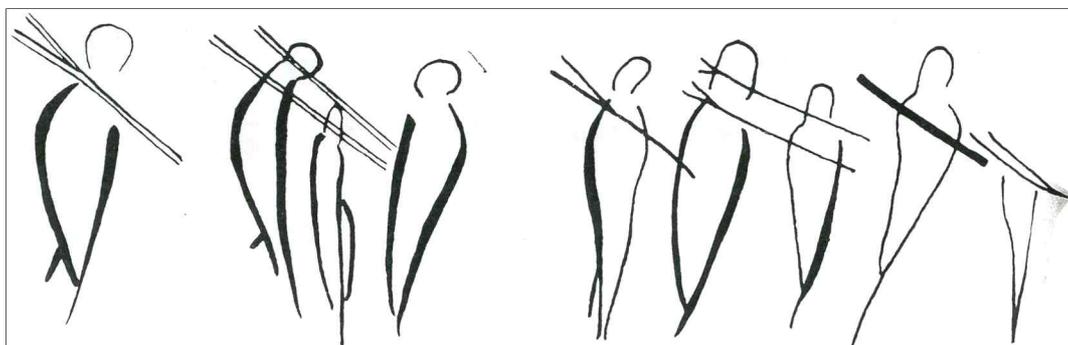


그림 3. 들소와 사냥꾼들이 새겨진 뼈 - 사람들 확대 (Marshack, 1970, 206p.).

조태섭

이 사람이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으로 보아 이 그림에서는 들소를 잡기위해 1명의 창을 든 사람을 포함해 7명의 사냥꾼의 무리가 움직였음을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앞쪽의 해체된 두 다리와 뼈만 남은 등 부위에 주목하여 사냥한 들소를 부위별로 해체하고 분배하여 잡아먹는 그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Duhard, 1997).

3.2. 들소와 9인의 사냥꾼

레제지 옛성의 바위그늘(Abri de Chateau aux Eyzies)은 프랑스 도르돈뉴 지방, 선사시대의 수도라 불리는 레제지 마을의 뒤편에 많은 바위그늘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하나인 이 바위그늘에서 나온 약 10cm의 작은 뼈 무리사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뼈 유물의 두께와 크기로 보아 소과 짐승(Bovidae)의 갈비뼈로 추정되는 이 뼈에서 사냥과 관계된 새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사냥을 나가는 장면으로 널리 알려진 이 새김 조각의 구성은 오른쪽으로 커다란 들소가 있고, 이 들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9명의 사람

들과 주위에는 커다란 나무가 4그루 있는 것이다. 즉 나무숲을 헤치며 들소 사냥을 가고 있는 사냥꾼들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사냥꾼들이다. 창을 어깨에 걸치고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현미경관찰을 통하여 자세히 묘사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그림 3).

확대한 그림으로 볼 것은 먼저 새겨진 사람들의 간격이다. 9명의 사냥꾼들은 모두가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1 - 3 - 5의 무리를 지어 나가고 있다. 맨 앞에 5명, 중간에 3명 그리고 맨 뒤에 1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냥꾼들의 역할 분담을 암시하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맨 앞은 전면에서 공격하는 조, 두 번째는 지원 조 그리고 맨 뒤는 대장.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선두에 서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알려주듯이 제일 앞의 사람은 신체의 절반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깨에 메고 있는 창으로 다른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5명 무리의 창은 한 선으로 새겨 그렸고 그 뒤 사람들의 창은 두 줄로 표시했다. 또한 맨 뒤의 사람의 창은 두 줄로 표시하고 창 끝이 <Y> 자 모양으로 갈라진 모습이다. 이 또한 세 무리의 차이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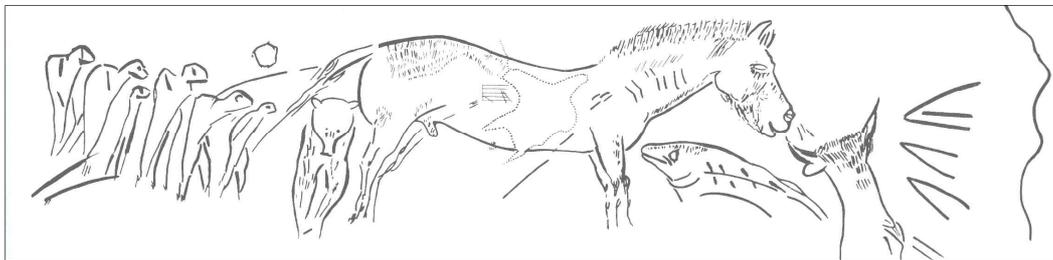


그림 4. 말과 6인의 사람들의 새겨진 독수리의 뼈 - La Vache , Ariège, France (Marshack, 1970, 206p.).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새김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같은 양식으로 새기지 않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새기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점을 표현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뜻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3.3. 말과 6인의 사냥꾼

전체 길이가 16cm인 독수리의 앞팔뼈에 말과 사람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함께 새긴 예술품이 라바쉬(La Vache)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프랑스의 아리에쥬(Ariege) 지방에 있는 동굴 유적이다(그림 4).

곰과 물고기 등의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중앙에 제일 크게 새겨진 말과 그 뒤를 쫓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6명이며 이중 두 사람의 크기가 작고 영성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을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른 4명 청소년 2명이 한 무리를 이루어 말을 뒤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사람에서 나온 선이 말과 연결되어 있어 아마 창과 같은 것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앞서 살펴본 들소를 잡기위해 9명 무리, 7명 무리가 동원된 것보다는 작은 수이지만 말이나 들소와 같이 큰 짐승을 잡기위해서는 최소한 5명 이상이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4. 사슴과 3인의 사냥꾼

위와 같은 라바쉬 동굴에서 나온 또 한 점의 예술품은 그 만든 형태가 독특하여 관심을 끄는



그림 5. 사슴과 3인의 사냥꾼 무리 - La Vache , Ariege, France (White, 2003, 106p.).

조태섭

유물이다(그림 5). 커다란 사슴 한 마리와 이를 뒤쫓고 있는 3명의 사냥꾼을 묘사한 것인데 대상을 새기거나 깎아 만든 다른 대부분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 유물은 주위를 깎아내고 만든 돌을 새김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약 30cm의 이 굽막대(Baton Percee)의 중간부분에 나있는 이 장면은 뿔이 매우 큰 장년기의 사슴이 왼쪽으로 향해 표현되고 뒤에서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창을 들고 있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 짐승을 몰고 있는 모습이다.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4. 멧음말

선사시대 특히 구석기시대의 옛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동물을 사냥했는지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몇 개의 당시 사람들이 남긴 예술품을 통하여 옛사람들의 사냥활동의 일단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먼저 사냥 무리의 규모이다. 그려진 예술품의 경우를 보면 무리의 규모는 1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대략 10명 안팎의 소규모 집단이 공동 사냥을 나갔을 것이며 이들은 사냥 대상에 따라 무리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들소와 같은 커다랗고 사나운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9명 또는 7명의 무리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대형의 동물인 말을 잡기 위해서도 6명이 함께 행동을 같이 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사슴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고 순한 짐승을 사냥하는 무리는 2-3명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당시 사냥무리의 규모는 10명 아래로 이루어지고 이 규모는 잡으려는 동물마다 약간씩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러한 무리도 서로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확인된다. 왜냐하면 모두 9명이 사냥을 나간 무리의 경우 모두 4개의 작은

무리로 나누어 그려졌고 이것은 각 무리들의 역할이 달랐음을 암시하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사냥에 나간 무리들의 무기는 대부분이 창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석기의 제작과 사용은 발달에 발달을 거듭해 작고 강력한 석기인 찌르개를 만들고 이를 창에 연결하여 더욱 효율적인 사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석기와 나무를 연결한 일종의 복합연모인 이 창이야말로 가장 능률적인 사냥 수단이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희, 1993. 「프랑스 후기구석기시대의 예술에 대하여」 299-338쪽. 『이화사학연구』 20·21 합집. (이화사학연구소, 서울)
- 조태섭, 2011. 「선사시대 사냥의 문화 -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28-80쪽.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한국문화사 40. (국사편찬위원회)
- 조태섭, 2012.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기술과 방법 - 유럽의 예술품에 나타난 사냥의 증거」 59-90쪽. 『한국구석기학보』 25. (한국구석기학회)
- 한창균, 1986. 「프랑스 후기구석기시대의 사회와 예술」 7-38쪽. 『박물관기요』 1. (단국대 박물관, 서울)
- B. Delluc, 2005. 공수진 번역, 「유럽 구석기시대의 믿음과 의식」 70-87쪽. 『선사시대의 예술』 (석장리박물관)
- 전곡선사박물관, 2013. 『인간은 사냥꾼인가?』 개관2주년기념 특별전 도록.
- Bellier C. et Cattelain P., 1990. La Chasse dans la Préhistoire 71p. (Ed. du CEDARC, Treignes)
- Bosinski G., 1990. Les Civilisations de la Préhistoire - Les chasseurs du Paléolithique supérieur. 281p.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방법 - 무리 사냥에 대한 고찰

- (Errance, Paris)
- Clottes, J., 2008. L'art des Cavernes Préhistoriques. Phaidon, Paris.
- Duhard J.P., 1996. Realisme de l'Image Masculine Paleolithique. 245p. (Ed. Jerome Millon, Grenoble)
- Jelinek J., 1989. Sociétés de Chasseurs. 208p. (Grund, Paris)
- Lindner K., 1950. La Chasse Préhistorique. 480p. (Payot, Paris)
- Marshack A., 1972. Les Racines de la Civilisation. 415p. (Plon, Paris)
- White R., 2003. L'art Préhistorique dans le Monde. (Ed. de La Martiniere, Paris)

2017년 11월 13일 접수
2017년 12월 28일 수정
2017년 12월 28일 승인